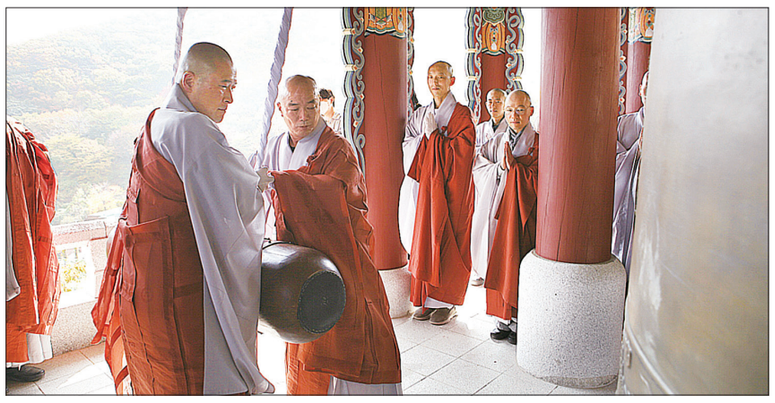
부산불교,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

11월 11일 11시…11번 타종

부산지역 사찰 50여곳 참여
참전 용사 극락왕생 발원해
동시 범종 울리며 추모묵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지역 사찰들이 11월 11일 11시 범종을 치며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부산 지역 사찰들이 11월 11일 11시 범종을 치며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국제 추모 행사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에 함께 동참하고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추모의식에는 범어사, 삼광사, 백운사, 부산 강서구 청량사, 부산 사상구 광명사, 부산 사상구 관음사, 부산 기장 안적사, 총지종 정각사, 금용암 등 부산 주요 사찰 50여 곳이 동참했으며 각 사찰의 불자들은 법당과 경내에서 타종 소리에 맞춰 묵념하며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2022 팔관회' 공식 행사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진행됐으며, 부산불교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와 함께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호국의 장으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범어사는 선문화관 앞 범종각에서 추모의식을 진행했으며, 주지 보운 스님이 타종하자 사중 스님들과 불자들은 현장에서 합장하며 묵념했다. 이후 불자들이 타종했으며 주지 보운 스님과 스님들은 유엔묘지를 향해 손을 모으고 추모의식을 이어갔다.

삼광사는 법당에서 불자들이 함께 묵념했으며 타종의식에는 부산 천태종 광명사 유치원 원아들이 참여해 타종할 때 합장하고 선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운 스님은 "신라시대 팔재계를 봉행하며 호국불교를 염원한 전통의식 팔관회를 '턴 투워드 부산' 세계 추모의 날과 더불어 호국 선열의 거룩한 희생을 추모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 처음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송구한 마음이 들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며 전국에서 일제히 범종을 울리고 추모하는 그 때까지 역할을 이어 갈 것"이라 말했다.

'부산을 향하여'라는 의미의 '턴 투워드 부산(Trun Toward Busan)'은 유엔전몰장병이 안치된 부산을 향하여 세계인이 함께 추모하고 기억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22개 유엔참전국이 2007년 첫 행사 때부터 함께 사용해온 공식 슬로건이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는 지난 2007년 빈센트 커트니 캐나다 참전용사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20년 제정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격상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에 맞추어 '턴 투워드 부산' 의식에 동참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타종의식을 진행했다.

한편, 범어사는 11월 16일 보제루에서 종립학교 원효학원 해동중학교(교장 최낙현) 졸업 법회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신입 교사와 3학년 졸업생 115명 가운데 63명(희망학생)이 계를 받았다.

주지 보운 스님은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꿈을 위해 노력 할 때 실패는 있을 수밖에 없다. 실패가 두려워 주저앉으면 시도하지 않게 되고 좌절의 삶을 자신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세상의 성공자들은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역경을 이겨낸다. 실패가 있어도 도전하는 의지를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동 쌍계사, 동국대에 2000만 원 기부

11월 9일 전달식… 건학위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영담)가 동국대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1월 9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쌍계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에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쌍계사 부주지 지현 스님,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윤성이 총장, 지역 장학생 20명이 함께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쌍계사는 동국대 재학생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2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경남 서부지역 산청, 함양, 진주, 함안, 거창, 합천, 고성, 통영, 거제, 사천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선발됐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동국대는 불교 종립대학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학생들의 학업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이 총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학생들이 이번 장학금을 통해서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학생들이 지역 미래불자 육성을 위한 이 장학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깨닫고 사회가 원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쌍계사 부주지 지현 스님은 "건학위원회에서 마련해주신 좋은 기회로 인재불사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이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사회의 기둥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혜원(철학과 4학년)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쌍계사와 영담스님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혜원 학생은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역경을 기회로 바꿔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눔 일번지 미소원, 개원 11주년

11월 12일 미소원 법당서 기념법회
기도비 모은 성금 100여만 원 전달
"우린 사람 살리고 佛法 전하는 이"


미소원이 11월 12일 미소원 법당에서 '개원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11월 12일 부산 범일동 미소원 법당에서 '개원 11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미소원은 2011년 11월 11일 설립한 재가 봉사단체로, 부산구치소 재소자 신행상담과 국립마산 결핵병원 후원, 무연고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등 나눔 활동을 전개했으며, 지역 복지 기관과 연계해 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외연을 넓혔다. 아울러 JTS 인도 불가촉천민 지원, 우물파기 등 해외 구호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법회에는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과 연종학림 주지 청명 스님, 경주 금선선원 현담 스님, 장유정 이사장, 김진홍 동구청장, 민경영 거인병원 병원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수행과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이두찬 초대 신도회장, 김주희 미소원 전임 법인이사, 김소양 신도회장, 문연숙 신도회 부회장이 공로장을 받았으며, 취약계층 지원에 헌신하고 지역복지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지아 미소팀장과 조소정 청년회문화부장이 동구청장상을 받았다.

이어 미소원은 11주년을 맞아 기도비로 모은 성금 183만 7390원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이어 미소원의 행보를 응원하며 평화시장 불자회에서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나눔 후원비 50만 원을 미소원에 전달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우리는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사람을 살리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귀한 존재들이시다"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자랑스럽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목종 스님은 "미소원은 부처님 가르침이 실현된 장소라고 생각한다. 법계에 많은 불국토가 있지만 처음 출발할 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며 "미소원 개원 11주년을 축하드리고 자비의 불국토가 만들어질 때까지 수행 정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청명 스님은 "관음신앙 중에 관세음보살님의 33가지 모습 중에 한 분이 사자후관음이다. 시방세계를 두루 울리는 사자후 보살처럼 이사장님께서는 모두에게 울림을 주고 실천하도록 움직이게 만든다"며 "신명나는 봉사활동을 응원하며 11주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종희 동구청장은 "미소원 11주년을 축하드리며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종교에 관계없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런 훌륭한 봉사단체가 우리 동구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고 축사했다.

한편, 미소원은 11월 7일 정토회 두북수련원(울산 울주군 소재)을 방문해 JTS 인도 의료비 지원 및 우물 파기 후원금 1305만 원을 전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환수 못한 성보 환지본처 기원합니다"

신흥사, 영산회상도 보물 지정 기념 · 시왕도 환수 기원대회

美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시왕도 4점 조속 환수 기원



국외로 반출됐다가 66년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온 신흥사 영산회상도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을 기념하고 미환수 성보를 환수하기 위한 염원을 모으는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회주 우송)는 11월 15일 경내 유물박물관에서 '영산회상도 보물 지정 기념식 및 시왕도 조기 환수 기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신흥사 회주 우송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주지 무문 스님은 "신흥사의 성보인 영산회상도가 국외를 떠돌다 환지본처했고, 돌아온 지 2년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면서 "신흥사 사부대중은 환지본처한 성보를 잘 예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6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수화승 태전을 비롯한 10명의 화승이 제작한 불화로, 해외로 유출된 후 60여 년 넘게 전해져 내려오다 2020년 미국에서 환수됐다.

지정 당시 문화재청은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강원도 지역에 소수만 남아있는 18세기 불화로서 희소성이 있고 조선왕실의 원찰인 신흥사에서 영산재 봉행을 위해 조성한 후 극락전에 봉안했다는 점에서 역사 · 학술 ·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화면 속 존상(尊像)들의 절제된 형태와 차분한 분위기, 중간 색조의 색감 등 품격 있는 화풍을 구현했다"고 지정 이유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신흥사는 현재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흥사 4점에 대한 조기 환수를 기원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신흥사 시왕도는 1798년 (정조 22년)에 조성됐으며, 제2초강대왕도 · 제4오관대왕도 · 제6변성대왕도 · 제3송제대왕도 · 제5염라대왕도 · 제9도시대왕도 총 6점이 환수됐다. 하지만 4점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상래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 이사장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시왕도 4점이 미국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서한문을 보내고, 이 박물관과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한 제주도청에 시왕도도 함께 전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조기 환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삼광사, 자비의 쌀 1만kg 전달

지역아동센터 및 저소득 가정 등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가 11월 10일 경내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삼광사는 전달식에서 백미 1만kg을 부산진구청, 부산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부산시협회, 복지관시설, 저소득가정에 전달했으며, 쌀은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주지 영제 스님, 재무 성화 스님과 삼광사 지부위원들이 동참했으며 각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불교는 대승보살도 실천을 시대정신으로 삼아야한다"며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자비의 쌀은 삼광사 창립 53주년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삼광사는 매년 지역 나눔을 위해 백미 및 김장 나눔 등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련, 제73차 전국지도자연수회 성료

'마음 챙김과 자기 연민' 주제로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정무)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제73차 전국지도자연수회 '나의 절친은 자기 친절입니다'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회는 자신과 타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의 힘을 알 수 있도록 마음 챙김과 자기 연민(Mindful Self Compassion)을 주제로 진행됐다.

혜총 스님은 법어를 통해 "'꽃도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참 사랑의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며 "탐심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상을 사랑할 때 진심이 전해지는 법이다. 어린이를 대할 때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수회는 서광 스님의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마음챙김-자기연민(Mindful Self-Compassion For Teens)'으로 시작해 이경미 차의과학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는 '진정한 사랑은 자기치유로부터 시작된다' 주제로 푸드테라피가 진행됐다. 다음날 '토닥토닥 따스함을 느껴요'와 '친절한 주의 기울이기-연민어린 바디스캔', '쓰담쓰담 쉼 해요', '내 마음의 글을 써요' 등 마음 챙김을 통한 자기 연민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강의는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소속의 김나연, 장초희, 혜타 스님, 홍혜성 강사가 담당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합창단聯, 2022 부산불교합창제

11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등 참여
"찬불합창 대중화 위해 노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옥희)가 11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22 부산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대중에게 전하는 묘법연화의 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합창제는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과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너울무용단의 '극락무'로 문을 열었다.

합창제는 부산불교연합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 범어사 금강암 금소리합창단, 부산불교 지휘자 중창단, 혜원정사 합창단, 진각종 유가합창단, 용화선문 미룡사 바라밀합창단이 참여했다.

김옥희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가슴 깊이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며 "부산불교합창제연합회 회원들은 신심 깊은 불자로서 각 사찰에서 수행하고 봉사하는 것은 물론, 음성포교의 일환으로 찬불합창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국보급 문화재 답사하고 강의도 듣고

수덕사 문화유산 투어 템플스테이 '눈길'

국보급 사찰 문화재를 답사하고 강의를 듣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정묵)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 문화유산 투어 템플스테이 '를 이어간다"고 11월 16일 밝혔다.

문화유산 답사와 강의를 연계한 '문화유산 투어 템플스테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매회 20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해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에는 '고건축'을 주제로 정하고 우리 건축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참가자들은 한옥에 묵으며 전통 사찰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유산 전문가인 류호철 안양대 교수와 함께 국보로 지정된 수덕사 대웅전 등을 답사하며 우리 전통건축에 숨어있는 조상들의 지혜와 지식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고건축박물관에서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갖가지 목조건축 문화재들의 모형을 비교하며 전통건축의 비밀을 찾고, 추사고택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삶과 함께 한옥에 담긴 과학성을 알아본다. 사찰로 돌아와서는 손꼽히는 고려 시대 건축물인 수덕사 대웅전을 통해 그 시대 건축물의 특성과 국보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본다. 수덕사는 "문화유산 투어 템플스테이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게 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덕사가 특별 기획한 ' 문화유산 투어 템플스테이-고건축편 '은 12월 16일, 30일 각각 1박 2일로 진행된다.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041)330-7789.

신성민 기자